■ 사찰 재정 투명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종단 차원 사찰운영위원회법 공정 엄격한 집행이 첫 걸음

제3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사찰 재정 투명화'를 의제로 오는 25일 오전10시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이날 대중공사 의제가 사찰 재정을 주제로 진행되는 만큼 사찰 재정 공개나 사부대중의 사찰 운영 참여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이 펼쳐질 전망이다. 불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종교 재정에 대한 투명화와 공개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찰 재정 투명화의 요구는 '사찰 재정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횡령이나 사찰 재정 유용 등 일부의 일탈 행위로 인해 사찰 재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화된 측면도 없지 않다. 또 신도들의 사찰 운영이나 재정 집행에 대한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찰 재정에 대한 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찰의 재정을 공개하고 투명한 운영을 하는 것은 청정승가의 가풍을 진작시키는 일이다. 사부대중의 사찰 운영 참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 종단은 지난 2012년 사찰운영위원회법을 개정했다. 사찰운영위원회법은 사부대중 공의에 의한 사찰운영을 실현하고 재정 투명화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신도들을 사찰 운영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신도들의 사찰운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찰 운영의 능률화, 공개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운영위원회에서 사찰의 예산과 결산, 사찰 자체 감사 시행 등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사찰 예산이 투명하게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로 사찰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며 신도들에게 재정을 공개한 사찰들의 경우 신도들의 사찰 운영 참여 확대, 신뢰도 상승으로 인해 사찰 예산이 늘어나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 화계사 주지 수암스님은 "사찰 재정 투명화와 사찰운영위원회는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속도나 접근 방법에

운영위원 공의모아 선출
재정공개한 곳 예산증가
신도 참여 신뢰도' 상승'

대해 이견이 있는데 이는 사부대중이 함께 논의해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맞춰가야 하는 문제"라며 "사찰 재정 투명화와 함께 사찰 수입 구조를 다각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지역 한 사찰 주지 스님은 "재정 투명화는 모든 사찰이 아닌 문화재 사찰이나 관광 수입사찰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수입이 많은 이들 사찰의 재정투명화가 이뤄질 때 사찰 전체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신도들의 사찰 운영 참여 확대를 통해 재정투명화와 재정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철 교수는 "사찰 수입원은 주로 신도들의 공양금에 의존하고 있고 사찰운영 역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사찰 운영에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찰 재정에 대한 의사결정과 감사, 집행이 별도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같은 구조가 만들어질 때 재정 투명화도 가능하고 사찰재정도 확대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재정 공개 범위 확대와 운영위원회법의 공정한 적용을 강조했다. 정웅기 위원장은 "많은 사찰에서 수입과 지출을 사찰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지만 한 단계 발전해 일반 신도들과 대중들에게도 공개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종단 차원에서 모든 사찰에 사찰운영위원회법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엄격하고 공정한 법집행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한 사찰 신도회장은 "사찰운영위원회법과 같은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지만 문제는 실제 사찰에서 운영위원회 법에 맞게 이뤄지지 않다는 데 있다. 운영위원도 신도들의 공의를 모아 선출되어야 한다"며 "또 사찰 예·결산을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찰 수입 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재정 투명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온 세상 자비의 싹 움트길"

조계종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 '2015 출범'
새 팀장 17명 임명…우수봉사자 인증배지

조계종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행복한 봉사 즐거운 인생'을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20주년을 맞은 조계종자원봉사단의 자비보살행으로 인해 한결 정이 넘치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 자비로운 마음의 싹이 움트고 온 세상이 희망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길 발원합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부설 조계종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봉사단 신임봉사팀장 임명식과 축하연 등의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스님은 '행복한 봉사 즐거운 인생'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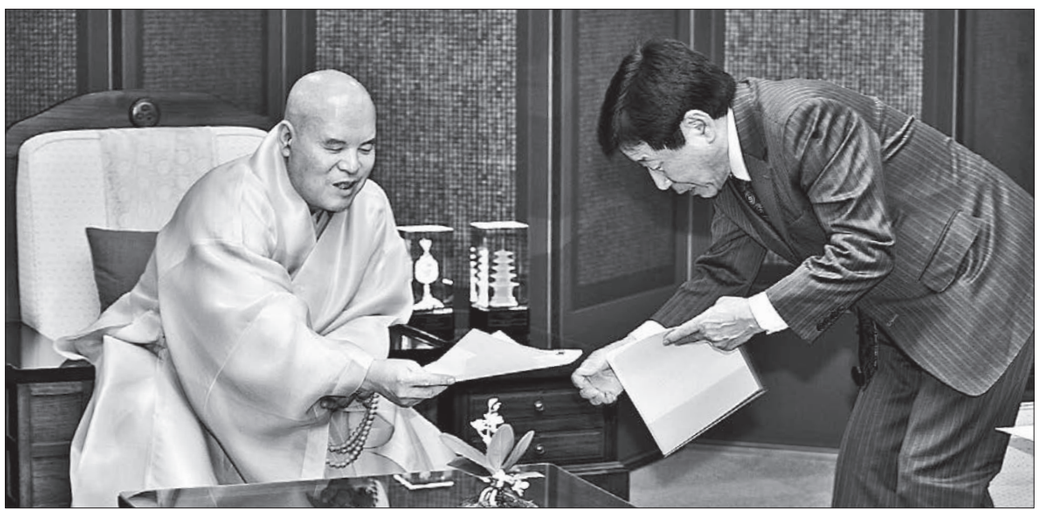
보경스님은 "마음의 주인이 되어 언제나 웃는 얼굴을 갖고서 봉사하는 주체가 행복해야 한다. 봉사는 자기희생이 전제되기보다 나도 남도 이로운 자리이타행이 돼야 한다"며 "봉사의 중심 행복의 꽃밭에 있는 여러분들은 넘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쁜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얼굴(face)'을 주제로 한 영국 BBS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등 30분 특별강연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참가 봉사단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단 62개 팀 중 올해 새롭게 선임된 신임 팀장 17명을 대상으로 사명감 고취를 위한 봉사팀장 임명식을 시작으로 2014년 1년간 꾸준히 봉사해온 봉사자 중 120시간, 500시간 1000시간, 2000시간, 3000시간 이상 활동한 96명을 대표해서 5명에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발급된 우수봉사자 인증배지를 수여했다.

이어 2015년도 조계종직할자원봉사단의 새로운 가족이 될 신규단원 17명의 단복 착복식, 단원증 증정을 통한 환영식 등이 열렸다. 또 '9988 백수연(百睟宴)'을 통해 회갑과 칠순, 팔순이 되어도 나이에 상관없이 꾸준히 자비나눔실천을 해오는 봉사자를 격려했고,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한 창일어린이집, 낙산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축하공연도 선보였다.

조계종자원봉사센터는 "직할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소진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며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아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정은 기자


4월 국회에 '사형제 폐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지난 18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해 법안내용을 설명하며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사형제 폐지' 촉구 조계종 지지 요청

새정치민주연합, 예방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강창일, 임수경 의원 등이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해 사형제 폐지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유인태 의원은 "17대 국회에서는 175명이 사형제 폐지 서명에 동참했던 것에 비해 19대 국회에서는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2009년 4대 종단 대표가 성명을 발표했던 것처럼 폐지 운동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시면 과반수 표를 얻어 특별법안을 제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도 "국회 정각회 회원들에게 사형제 폐지에 대한 지지를 담은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힘 써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스님은 "(사형제 폐지)특별법안의 취지를 잘 알고 있는 만큼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요청에 따라 총무원장 스님은 국회 정각회 회원들에게 사형제 폐지 법안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편지를 보낼 예정이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3월18일 종무회의

대현스님 칠곡 정암사
정우스님 부산 정수사
법기스님 김포 봉정사
효명스님 하동 쌍계사
경우스님 고창 선운사
현각스님 강릉 대성사
혜전스님 아산 봉곡사
선조스님 영천 봉림사
정효스님 거제 백련암
운암스님 부산 청량사
만천스님 창녕 도성암
진경스님 서울 법련사
효민스님 경산 수안사

'지역포교와 포교사단 길'

4월 1일 포교종책연찬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스님)은 오는 4월1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지역포교와 포교사단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제61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한다. 지역포교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이번 연찬회는 지역포교에서의 포교사단의 역할을 점검하고, 포교사의 위상과 자격정립을 통한 포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사회를 맡은 이번 연찬회는 윤영희 포교원 포교차장이 '지역포교와 포교사단의 역할', 전호균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교육위원이 '포교활성화를 위한 교구와 사찰의 역할',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포교사단의 미래상과 나아갈 방향' 등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윤기중 포교사단 수석부단장과 범어사 포교국장 지장스님 등이 지정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박인탁 기자

경남제일 기도영험도량 양산 천불사

道峰 큰스님께서 광주 백양사 백학봉 약수암 토굴에서 천일기도 회향 후 도솔천 천궁의 운기를 받는다는 뜻의 천불사라는 사찰명(寺刹名)을 계시 받아 창건하였습니다.

도봉 큰스님이 득도하신 백옥 산신각과 순혈터, 천병이 사라지는 약사전, 그리고 불국사에 버금가는 관음굴이 있는 기도영험도량입니다.

천불사를 찾아주시는 모든 이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천불사 회주 운보 석청 주지 무상 종덕 합장

부모은중선원 입주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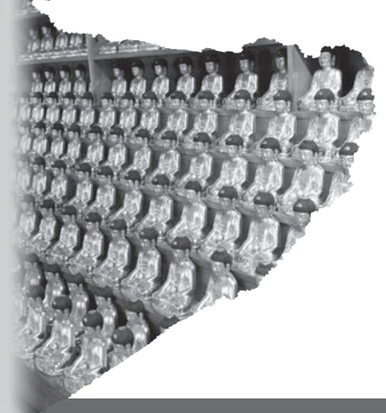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
천불사 부모은중선원이 책임지겠습니다.

- 양산 최고의 요지, 부산과 울산 등 대도시에서 30분 거리
- 중대형 병원 인접, 간호사 상주
- 식사 등 일체 제공(월 회비 및 관리비 없음)
- 개인 6천만원, 부부 9천만원

극락원(납골당) 분양안내

선진 장묘문화,
천불사 극락원이 선도해 나갑니다.

- 공신력있는 운영, 최적의 시스템 구축
- 탁월한 경관과 어우러져 명당으로 으뜸
- 대도시와 인접, 대형 주차창 완비



주소 경남 양산시 매곡동 304-1 전화 055-365-1463 팩스 055-367-6541